

한국의 다문화정책,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 C시 가족센터 경험을 중심으로

김선숙* · 조소연** · 진재찬***

요약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 및 서비스의 변화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구체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시의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이주민 대상 서비스 제공 기관인 가족센터를 사례연구하였다. 가족센터 서비스이용자와 실무자를 면접함으로써, 기관의 다문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살펴보았다. 가족센터 사업 참여 전 상황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막막함, 고립감과 외로움, 배움의 욕구와 갈증,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 하였다. 이들은 가족센터에서 정보제공 및 상담, 교육, 생활지원, 문화체험과 여가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았고, 가족센터를 통해 배움, 심, 만남, 자신감을 찾음, 돕는 자로 전환,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감이라는 성과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실무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동인에 대해 실무자들의 잘 듣고 설명해 주기, 관계를 통한 소통, 중간 역할에 초점두기, 이용자의 욕구와 강점 활용하기, 자율성 확보하기라고 이야기 하였다.

주요어 이주민, 사회통합, 다문화가족, 가족센터

* 제1저자,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ksunsuk@ut.ac.kr

** 교신저자,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smusy@ut.ac.kr

*** 공동저자,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wlswocks@naver.com

1. 서론

한국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기를 경험하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이주해온 장기 또는 단기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등을 통해 유입된 여성 등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 인력은 2023년 현재 약 250만명에 달하고 있다(법무부 2023).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로 이주해 온 외국인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한 후 본국에서 가족이나 지인 또는 자녀를 초청하거나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07년 이후 전국의 초·중·고 학생 수는 감소하였으나,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학업, 근로, 결혼 등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가족은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김중세 2019). 다문화는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 사회는 한국이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말한다(다음백과 2023). 즉, 한국이라는 사회에 다른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약 200만명 이상 살아가고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화들을 통칭하여 다문화라 하고, 그러한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다문화가족법」은 한국 다문화사회의 일부인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한정하여 다문화가족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우리사회의 다문화는 결혼이민자 구성원이라는 의미로 매우 협소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대상 서비스 역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다문화 정책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한국사회 전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이주민들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이주민들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섭하여 사회로 통합하는 방향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 사회로 이행해가는 데 있어서 이주민과 주

류 한국인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 및 서비스의 구체적 발전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C시의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이주민 대상 서비스 제공 기관인 가족센터를 사례연구하였다. C시는 2022년 현재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4.5%) 및 외국인 주민 중 국적취득 비율(0.4%), 외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1.0%)과 결혼이주민의 비율(0.3%)이 전국 평균과 유사하며,¹ 경기와 서울, 인천, 충남 등을 제외하면 모든 수치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C시는 외국인 자녀 비율이 높은 편이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경기와 인천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한다. 본 연구의 주요 현장인 가족센터는 C시에 있는 12곳 가족센터 중 하나이며, 이 기관은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업을 시작하여 2019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문화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 대상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은 가족센터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전체 주민 중 외국인 비율이 높은 C시의 가족센터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을 일면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시 가족센터 서비스이용자와 실무자를 면접함으로써, 기관의 다문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제결혼, 장단기 취업 등의 이유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과 이들의 가족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C시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이주민과 한국인 가족들, 또한 이들과 함께 일하는 실무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4.1%(최소 2.1%, 최대 5.2%), 외국인 주민 중 국적 취득자는 0.4%(최소 0.2%, 최대 0.5%), 외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는 0.8%(최소 0.2%, 최대 1.3%), 외국 국적 결혼이주민은 0.3%(최대 0.2%, 최대 0.4%)를 차지함(통계청(2023) 자료를 연구진이 재계산).

2. 선행연구 고찰

1) 국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추이

이주민이란 국내 입국하여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하며(김태완·서재권 2015), 이주민이 총 인구의 5% 이상일 때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된다(박소정 2013).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행정안전부 2023), 2022년 국내 체류하는 이주민 수는 226만명이다. 이는 총 인구 대비 약 4.4%에 해당하며, 2006년 대비 약 4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2022년 국내 체류 중인 이주민 중 한국 국적 취득자와 한국에서 출생한 이주민 자녀를 제외한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민은 전체 이주민의 77.6%이다. 특히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민 중 유학생이나 외국국적동포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결혼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서미경 외 2015)은 25.7%에 달한다. 2022년 11월 기준, 결혼이주민의 수는 17만명,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40만명으로 전체 이주민 수 대비 비율은 <표 1>과 같이 매년 줄고 있는 추세지만, 결혼이민자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김종세 2019; 행정안전부 2023). 아울러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와 한국 국적 취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유례없는 저출산 비율 및 고령화 속도에 비춰볼 때 한국사회에 이주민 가구 비율은 머지않아 국내 인구 대비 5%를 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전술한 이주민 현황은 이주민과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이 신규 유입된 이주민 외에도 현재 국내 거주하고 정착한 이주민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을 시사해준다.

표 1. 이주민 현황(2016~2022년)

단위: 천명(%)

| 구분 | 16년 | 18년 | 20년 | 22년 |
|---------------|-------------|-------------|-------------|-------------|
| 전체 이주민 | 1,764(3.4) | 2,054(4.0) | 2,156(4.2) | 2,258(4.4) |
|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 1,413(80.1) | 1,651(80.4) | 1,695(78.6) | 1,752(77.6) |
| 외국인 근로자 | 541(30.7) | 528(25.7) | 455(21.1) | 403(17.9) |
| 결혼이민자 | 159(9.0) | 166(8.1) | 173(8.1) | 175(7.8) |

| | | | | |
|-----------|-----------|-----------|-----------|-----------|
| 외국인주민자녀출생 | 191(10.8) | 226(11.0) | 261(12.1) | 282(12.5) |
| 한국국적 취득자 | 159(9.0) | 176(8.6) | 199(9.2) | 223(9.9) |

*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함(행정안전부 2017; 2019; 2021; 2023).

** 전체 이주민 비율은 전체 국내인구 대비로 산출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전체 이주민 대비 비율임.

2) 국외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다문화사회로 비교적 일찍 진입한 다수의 서구 국가는 이주민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해왔다(최명민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 중 대표적인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럽과 중남미 인구의 대규모 이주로 형성된 미국은 사회통합을 위해 출신국, 인종, 문화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소극적인 국가 정책을 펼쳐왔다(Kucheryavaya et al. 2020). 그 결과 소수 인종이나 일부 출신국의 이주민이 미국사회에서 차별과 배제를 받는 현상이 발생하여, 현재는 소수자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Wallace et al. 2021). 소수자 우대 정책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은 선별주의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별적 지원이 오히려 역차별과 같은 인종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합법적 이민자를 시민권자로 보기 때문에, 불평등과 차별을 겪는 다양한 소수자의 고용과 교육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성미애 2011). 특히, 미국은 이민자와 그 자녀의 적응과 사회통합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언어습득으로 보고 다문화가족 지원 중 언어학습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Waldfoegel and Lahaie 2007). 이처럼 이민자를 시민권자로 여기는 미국은 다문화가족이 주류사회로 통합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을 주요 기조로 삼아왔다.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다문화 정책 기조가 미국이 다문화 융합을 통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문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한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최명민 외 2015).

미국과 달리, 독일은 다문화 수용성이 상당히 낮은 국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주민과 내국인 간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이룬 다문화가족정책을 이행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Brinkman and Sauer 2016). 독일은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5명 중 1명이 망명, 귀환, 유학, 결혼이민 등으로 인한 이주민이다(박채복 2016). 독일은 오래전부터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였다. 초기 독일의 이민자 정책에서 외국인노동자와 가족은 사회통합의 대상이 아닌 귀환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내국인과의 차별을 바탕으로 둔 정책을 이행하였다(이상주·전미숙 2016). 이같은 초기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독일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붕괴와 1991년 구 소비에트 연방와해로 인한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독일은 1991년 외국인법 개정을 시작으로 이민자를 독일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신재주 2010). 특히 독일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경험하면서, 이주민친화정책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기고 있다(김영란 2012). 이에 현재 독일은 '지원과 요구(Fordern und Fördern)'라는 이주민 정책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이주민에게 독일의 언어와 사회가치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일과 함께 이주민의 독일 사회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수자 2023). 특히 독일은 이주민의 지원 중 이주민의 주거와 일자리와 더불어 이주민 자녀들의 적응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자 자녀가 학교에 적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나 언어교육 외에도 자녀들의 독일사회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주민 어머니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박채복 2016).

3)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현황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도록 돕는 포괄적인 종합 서비스이다(여성가족부 202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을 위해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해 가족센터로 운영되어 왔다(진미정 외 2023). 가족센터는 국내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기관으로써

(여성가족부 2022), 그동안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해왔고, 그 남편에게는 가족관계강화 서비스, 자조모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여성가족부 2022). 특히 여성가족부가 2023년 4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4대 과제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정착주기별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더 강화 및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 2023).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은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가 포함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가족으로 제한된다(김종세 2021).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 난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이은채 2022).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법, 경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로, 임금체불이나 폭행과 같은 비인간적인 처우나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서미경 외 2015). 이러한 이주민의 어려움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주민 자녀가 청소년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김종세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다문화가정 내 학령기 청소년은 언어습득의 어려움, 정체성 혼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따돌림,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비행으로 연결되기도 한다(오경화 2011; Weber et al. 2018). 이러한 가능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미등록 체류 외국인의 자녀일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문병기 외 2018; 송정아 2021).

최근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가정문제 외에도 사회적 불평등과 함께 경제적,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정책적 문제는 미래사회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의 다문화가족 정의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일 외에도 이민자 가정의 아동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김종세 2021).

3.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사례는 C시 A가족센터의 이주민을 위한 사업이며, 이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맥락을 탐색하고, 사업의 효과와 변화 요인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인 실무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주민의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일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있게 탐색하는 질적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례연구는 개인이나 집단, 혹은 지역사회, 사건, 프로그램 등 경계를 지닌 체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특정 사례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한 기술을 특징으로 하며(Stake 1995; Yin 2014), 이를 통해 분석 사례를 포함하는 모집단의 이해에 기여한다(조용환 외 2022). 본 사례연구를 통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리사회 다문화 정책과 서비스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현장 및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현장은 C시 A가족센터이다. A센터는 2019년 1월 1일에 기존의 각각 운영되어 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설립하여 주로 결혼이주민과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해왔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0년 설립되어 가족기능 회복이나 부모교육, 아이돌봄사업 등을 실시했다. 조직은 사무국과 운영지원팀, 교육지원팀, 상담지원팀, 돌봄지원팀의 4개 팀을 구성되어 있으며 3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2022년 A센터 사업보고서) 이들 중에는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하던 직원도 있고 기관이 통합되면서 새롭게 채용된 사람도 있다(안장숙). 본 연구에도 이러한 배경의 실무자들이 5명 참여하였다. A센터 사업의 목표는 가족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사업과 돌봄 사업, 가족생활 지원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강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A센터 홈페이지 자료).

본 연구의 주된 자료는 면접자료이다. 연구자들은 가족센터 이용자와 실무자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센터의 사업을 이해하고 한국어로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결혼이주민 5명과 외국인노동자 5명을 섭외하였다. 이들의 출신국은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키르키스탄으로 다양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가족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자 5명을 면접하였다. 또한, A가족센터의 사업계획서와 보고서, 홍보자료 등 현장에서 생성된 문서 자료와 홈페이지 자료 등을 가족센터를 통한 변화의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 이름은 가명으로 표시하였고 실무자의 A가족센터에서의 근무경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표 2. 연구참여자

| 구분 | 참여자(가명) | 성별 | 나이 | 출신국 | 국내거주기간 | A센터이용기간 |
|-------------------|---------|----|-----|-------|--------|----------|
| 결혼 이주민 이용자 | 란위 | 여 | 30대 | 베트남 | 11년 | 4년 |
| | 장유나 | 여 | 30대 | 베트남 | 19년 | 13년 |
| | 정아란 | 여 | 30대 | 베트남 | 10년 | 10년 |
| | 양자원 | 여 | 20대 | 베트남 | 7년 | 7년 |
| | 김홍인 | 여 | 30대 | 베트남 | 12년 | 7년 |
| 외국인 근로자 이용자 | 라나차락 | 여 | 20대 | 키르키스탄 | 8년 | 5년 |
| | 파사푸람 | 남 | 40대 | 네팔 | 16년 | 9년 |
| | 샤도르 | 남 | 30대 | 방글라데시 | 10년 | 5년 |
| | 플롬 | 남 | 40대 | 캄보디아 | 10년 | 4년 |
| | 캔디 | 남 | 30대 | 네팔 | 7년 | 5년 |
| 구분 | 참여자(가명) | 성별 | 나이 | 출신국 | 사회복지경력 | A센터경력* |
| 실무자 | 주영준 | 여 | 50대 | 대한민국 | 14년 | 14년(다문화) |
| | 안정숙 | 여 | 50대 | 대한민국 | 8년 | 8년(다문화) |
| | 윤영안 | 여 | 30대 | 대한민국 | 10년 | 10년(건가) |

| | | | | | | |
|--|-----|---|-----|------|----|---------|
| | 남윤희 | 여 | 30대 | 대한민국 | 7년 | 7년(건가) |
| | 박인숙 | 여 | 50대 | 대한민국 | 4년 | 4년(A센터) |

3) 자료수집 및 분석

면접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집단별로 1회씩 이루어졌다. 1회 면접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였으며 가족센터의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참여자에게 면접 질문을 전달하여 사전에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하면서 도출된 의견과 맥락을 파악하였다. 면접질문은 가족센터 사업에 참여하기 전 상황과 어려움과 해결방법, 가족센터 이용 경험과 변화, 가족센터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

면접 내용은 녹음하여 전사하였으며,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주제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초기 분석을 수행했고, 시간과 장소,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2차 분류하였다. 코딩하고 범주화한 내용은 연구 회의를 통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범주를 확정하고 보완하였고 이때 집단별 특성과 배경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염두에 두면서 해석하였다. 현장 자료도 유사한 방식으로 코딩, 분석하였다.

4) 윤리적 이슈와 연구의 질 검증

본 연구는 연구윤리 및 연구참여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KNUT IRB 2023-22). 연구자는 A가족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잠재적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안내를 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만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세부 일정, 이익과 불이익, 보상, 비밀보장 및 연구 참여 및 중단 권리의 권리 등을 안내하였다.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 결과는 참여자 및 가족분야 전문가 2명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였다.

4. 연구 결과

1) 가족센터 사업 참여 전 상황

(1) 막막함

가족센터 사업 참여 전 연구참여자가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막막함’이었다. 이런 감정은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이 한국에 입국할때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졌지만, 그런 희망은 바로 걱정으로 변하기도 한다. 입국 전 결혼이민과 해외 취업을 연계하는 회사를 통해 한국의 지원체계에 관해 안내받기도 하지만, 정보를 전혀 모른 채 입국하는 경우도 많았다.

신랑 어디 사는 것도 몰라요. 직업이 뭐인지 그냥 농사하기만 했는데요. 제가 사는 곳은 저쪽 시골인데 인천공항에 내려서 여기 계속 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시골에 온 거예요. 그때는 다 거짓말이에요. 업체 사람들 왜냐면 지금 농사 사람인데 뭐 부사장이나 사장이나 다 높은 사람만 얘기하니까 오니까 황당했지요(장유나).

이러한 막막함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더해지는 감정이기도 하다. 이주민이 한국에 온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이들의 모국은 “한국처럼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캐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으로의 취업을 모색한다. 특히, 네팔에서 온 근로자는 지진으로 피해 심해진 이후 “생존을 위해(파사푸람)” 한국행을 택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한국은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사도르)”로 인식되었다. 한국은 직장에서 기숙사와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 많았고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안전하고 사람들도 친절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특히, ‘한류’의 유행으로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라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올 때는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모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었지만, 오래 한국에서 지내다보면 모국에서 오히려 경력이 단절되고, 여러 가지 생활 기반을 한국에 마련한 터라 모국에 가서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이유다.

한국 와서 사람이 5년 지나면 나이도 먹으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다시 받을 수 없어요. 나이 제한 때문에 여기 계속 살 수 있어요(파사푸람).

(2) 고립감과 외로움

이주민의 경우에는 만날 사람도 별로 없을뿐더러 한국말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외출하는 것이 매우 두려운 일이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외출하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다. 이들은 가정에 고립된 채로 차별받은 경험도 있었다.

시골 살고 그러고 집 멀어요. 부모님도 휴대폰 안 사줘요. 나가지도 못해요. 맨 날 농사하고 그렇게 해요. 여기 한국 와서 상처 많이 받았어요. 힘들었어요. 여기 선인장이예요. 선인장은 가시 있잖아요. 완전 딱 아팠죠. 피 났잖아요.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도 안 통하고 문화가 달라요. 저기 시택 가고 주변 사람들이 다 차별, 차별했어요(김홍인).

(3) 배움의 욕구와 갈증

이주민의 가장 큰 욕구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모국에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우고 입국하였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모국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어를 익히고 시험에도 통과했지만, 입국까지 몇 년을 기다리다 보면 한국어를 잊은 상태로 입국하는 경우도 많았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한국어 못하니까 너무 서러워서 답답한 거예요. 얘기는 못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네’ 밖에 없으니까 우리 신랄도 기분이 안 좋아.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한국어. 그냥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어요(장유나).

그거는 말, 제일 어려웠어요. (연구자: 여기 처음에 오시려고 하면 그래도 외국에서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 볼 때하고 이 대화를 할 때는 좀 달라요(샤도르).

문화 차이에 따른 소통 불가와 갈등도 있었다. 이는 한국의 전통, 역사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의식주를 포함한 일상생활과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면에서 부닥치는 것이었다.

한국 시부모님 같이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 신으래요. 양말 안 신으면 예의 없어요. 항상 울었어요. 모든 것은 신을 때 다 양말 신어야 돼.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만나면 양말 신어, 양말 신어(김홍인).

화가 나면 '엄마 나 지금 사춘기니까 길게 말하지 마. 내버려 둬'. 잘못했어도 혼 나면 또 안 돼요. 왜요? 선생님 진짜. (중략) 그거는 베트남은 진짜로 몽둥이 가지고 와서 때릴 거예요. 한국 애 못 건들어요(란위).

(4)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행복한 가정에 관한 소망을 이야기했다. 결혼이 주민의 경우에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왔고 외국인 근로자 역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취업이 필요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에 혼자 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모국에 가족을 두고 온 연구참여자의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이야기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나중에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자는 돈 부자 말고 마음 부자예요(김홍인).

저는 여기 한국에 28살 때 와서 30살 때 2년 후에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갔는데 이거 1년에, 1년 반, 한 달, 한 달 반 정도 갔다 오니까 가족이 이렇게 떨어져 사

는 게 너무 아내가 더 많이 스트레스받고 저도 그래서. 같이 오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 아내도 좋아하고, 딸도 아빠하고 전화나 인터넷 있어서 영상통화 말하고 있지만 직접 만나 가지고 가족 같이 사는 거(파사푸람).

그러나 생계 문제로 가족을 모국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샤도르는 얼마 전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났지만, 곧 아내와 자녀를 모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비자 문제로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2) 가족센터 사업 참여 과정

이들은 이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 가족들이 함께 사는 날을 앞당기거나 가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부모교육을 찾아서 듣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주민이 가족센터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검색을 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한국 입국 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받은 후 문의·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용자 중에는 일회성 행사나 교육에 참여하면서 가족센터의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들이 함께 하는 축제나 캠페인, 문화행사, 혹은 부모교육과 같은 개방형 프로그램은 사업 자체로도 효과가 있지만, 이용자가 다른 사업으로 연결되는 역할도 한다. 특히,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이 상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었는데, 이주민들은 신규 회원 등록 전 이 공간에 먼저 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에 관해서 안내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곳은 이주민들의 사랑방이자 가족센터로 들어오는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공부 끝나고 이제 심심하고 그러니까 가서 친구들 사귀어라. 그럼

이제 그분들이 저희한테 오시면 그분들 대상으로 신규 대상자들 오시면 기존에 이제 대상자랑 같이 연계를 시켜서 소통할 수 있게(주영준).

3) 가족센터의 도움과 활동

(1) 정보제공 및 상담

이용자들이 가족센터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한 것은 정보의 공유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용자들은 생활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가족센터 실무자에게 질문을 했고, 이러한 질문은 언제 어디서나 계속되었다. 이러한 대화는 단순히 정보제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서적으로 위로받고 지지받는 경험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가족센터 이용자 간에도 자연스럽게 교환되었다.

우리가 한국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자 변경할 때나 (중략) 전화해서 아니면 문자 보내서. 저는 밤에 한 10시쯤에 해서 전화한 적도 있어요(캔디).

보호자들은 주로 밤 10시 이후에 전화를 한다던가. 토요일과 일요일만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다 받아주고 있어요. (중략) 사실 그분들이 근로 여건상 저랑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대 자체가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연락이 오면 다 받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안장숙).

(2) 교육

가족센터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중반의 경우 50여 명의 결혼이주민이 참여하고, 주말반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50여 명이 참여하는데 수강생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이다. 한편, 이주민 자녀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다문화자녀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과 수학, 미술, 체육 등의 교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

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가족센터의 교육활동에 참여해 봤거나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어 이외의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 보다는 결혼 이주민들이 주로 참여했는데, 이들의 자녀도 대부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교육은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이용자 중에는 한국어 교육 외에 가족센터에서 요리를 배우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비자 바뀌어서 가족들이 와요. 아기들이나 아내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이 한국말 아예 못 하니깐 그거는 여기서 지금 가르쳐줬으니깐 진짜 이해가 됐어. 선생님은 대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에 와서 가르쳐 주세요(샤도르).

(3) 생활 지원

이용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생계비나 물품을 지원받기도 했고 반찬 배달 서비스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지원은 보통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한국 국적을 지닌 경제적으로 취약한 수급권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가족센터는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도 대상이 되었고 수급권이 없는 가정도 지원 대상으로 책정하는 등 지원 범위가 더 넓은 편이었다.

일요일, 일요일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반찬 배달. 계절마다 음식이 또 다르니까 여름 때 삼계탕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략) 저는 더 많이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딸, 아들, 아내까지 다 도와주면서 같이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파사푸람).

(4) 문화체험과 여가활동

가족센터에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체험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여행이 어려운 가족을 위한 여행프로그램도 있었다.

우리는 가족은 주말에 언제 언제 여행 어떤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딸 한국의 문

화 같은 거, 친구들이랑 서로 안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국 사람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 훈련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양자원).

4) 가족센터를 통한 변화

(1) 배움

이주민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이 큰 성과이자 변화였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문화를 이해하는 시작점이 된다.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타인을 오해하거나 속는 피해가 줄었고, 차별을 받아 억울한 상황도 피할 수 있었다.

한국어 알면 다, 다 알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밖에 안 가도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샤도르).

(2) 쉬

이용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해방감과 마음의 휴식을 얻었고, 외롭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기도 했다. 이러한 지지는 실무자로부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간의 연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이용자들은 가족센터에서 차를 마시며 잠시 쉬기도 하고 가정 밖 공간에서 해방감도 느꼈다.

울면서도, 울면서도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언니들 만나고 스트레스 풀고요. 다 문화 가족(센터에) 가서 선생님들 하고 막 얘기하고 놀고 요리도 하고 그렇게 하니깐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힘든게,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무조건 다문화 가족센터 가요(장유나).

(3) 만남

이용자들은 가족센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연결되었다. 먼저 실무

자와의 관계를 맺으며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지체계가 확대되었고, 이용자 간에도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다문화센터 다니고 친구도 만나서 밥도 먹고 많이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거 많이 하고 싶어서. (중략) 네 처음에도, 처음 만난 친구도 다문화센터에서 만났어요(정아란).

결혼이주민은 가족이 있는데 이분(외국인 근로자)들은 가족이 없이 혼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소통 창구가 되어 그분들이 여기서 뭔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주영준).

이들은 가족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적으로도 관계를 맺으며 함께 식사하고 여행하기도 했다. 특히, 혼자 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명절 때 홀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함께 모여 연휴를 보낼 때가 많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이렇게 만난 동료들이 “형제와 같다(플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깊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우리는 거의 일주일마다 일요일하고 주말마다 배구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 공장 안에는 공간이 있어서 아침 교육하기 전에. (중략) 추석 때 거기 서울 갔어요. 남산. 그리고 네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염소 잡아먹었어요(캔디).

베트남에서는 이 친구 지금 몰랐잖아요. 여기 와서 친구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저희는 지금 나라가 하나씩 대표, 혹시 저 베트남 대표예요. 왜냐면 러시아 대표 있고, 중국 대표도 있고 네팔 대표 있어요. 태국 대표 있어요(김홍인).

(4) 자신감을 찾음

가족센터에 사업에 참여하기 전 자신의 문제 속에 갇혀 막막하고 우울함을 느끼던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며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자신 있고 그거 혹시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자신감도 있어요. 씩씩하고 울지 않아요. 그냥 웃어요. 아기 위해서 공부도 노력하고 애기 가르치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은 뭐든지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나는 할 수 있어요. ‘파이팅’ 그렇게 했어요.(김홍인).

(5) 돕는 자로 전환

가족센터를 오랜 기간 이용한 사람 중에는 지원과 활동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도움받는 사람에서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이가 있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도 하고, 소정의 급여를 받으며 통번역 활동가 등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지금은 비록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가족센터에서) 도움받은 것을 그 선생님들께 다 갚을 순 없을 것 같지만, 편안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갚겠다(라나차락).”라고 말하기도 했다.

저는 봉사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 말고 외국 사람 도와줘요. 뭐가 누가 아프든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양자원).

네, 여기서 지금은 기초 단계 수업 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청 못 하고 수업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선생님 저는 무조건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고, 제가 기초부터 가르쳐주고(캔디).

(6)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감

가족센터 사업에 참여한 가장 큰 성과는 이용자의 사업 전 기대와 바람대로 ‘행복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은 성장하였고 위

기 가족은 어려움을 벗어났으며, 이미 분리되었던 가족은 재결합하여 살아가는 성과가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지금은 힘든 상황이 다 지나가고 가족이 생기는 행운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정아란).

비자 변경을 통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가족들이 오면 손을 붙잡고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와요. 한 번은 그 친구들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식사를 할 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전에는 제가 그냥 정말 기계 같았는데 이제 가족이 오니까 내가 사람같이 느껴졌다'라고 말을 했을 때(안장숙).

5) 변화의 동인

(1) 잘 듣고 설명해주기

실무자가 이용자를 잘 돕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관찰을 통해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센터의 이용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방문하고 밤낮없이 전화하기도 했지만, 실무자는 이들의 어려움을 듣는 것 자체를 실천으로 여기고 언제든지 이들의 요청에 대응하고 있었다.

가능한 시간을 내서 들어주고 또 그분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연결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초점을 두고 있어요. (중략) 강사님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전화 받으시고 찾아도 만약에 그쪽에서 요청하면 정말 늦은 시간에 와서 도움도 주시고(안장숙).

저희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네 번 설명해 주는 게 좀 이제 오래된 직원들은 습관화가 돼 있고,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줘야 하고 알아듣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박인숙).

(2) 관계를 통한 소통

이용자의 문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 도움을 청하

는 이용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래서 실무자는 이용자의 어려움을 즉각 알아차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 SNS를 통해 이용자의 상황을 살펴보고 기도 하고 가족이나 이웃, 동료를 통해 근황을 묻기도 한다. 이런 소통이 일어나려면, 사전에 이용자와 이용자 주변의 사람들과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것은 대부분 사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한번 와 봐라 나랑 같이 점심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면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기존의 멤버들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대감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돼서 가능한 것 같아요(주영준).

그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하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저한테 전달해서 제가 그것을 다시 상의를 논의를 할 수 있는 다른 분들께 연결을 해서 이게 사후 처리를 해준 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윤영안).

(3) 중간 역할에 초점 두기

실무자는 이용자와 기관,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실무자는 가족구성원 간의 문제나 직장에서의 문제에 대해 중재와 조정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지지자.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그룹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하면서 조금 해체될 것 같으면 왜 해체를 하는지 어떤 게 부족해서 이렇게 해체가 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고 싶은데 그게 고민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당자랑 소통한 후에 그게 이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남윤희).

(4) 이용자의 욕구와 강점 활용하기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욕구에 맞추어 기획되었으며, 프로그램 중간에도 이용자 상황에 따라 내용과 방법, 시간 등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실무자는 프로그램 구성 시 이용자의 강점을 활용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용자가 평소에 즐겨하고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언어나 기술이 뛰어난 이용자를 보조 인력이나 강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주민들의 니즈에 맞게 또 저희가 변형을 시켜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남윤희).

만들기 위주로 한 이유는 우리 이주 여성들이 놀림이나 손재주가 엄청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손재주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만들기 위주로 했었고 또 자격증반도 운영을 해서 네일아트랑 속눈썹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원예 자격증 취득 반을 만들어서 또 5명이 또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주영준).

(5) 자율성 확보하기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은 참여나 과업 수행에 융통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용자가 모이는 장소를 편안하고 익숙한 분위기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가족센터는 이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다.

교육 장소보다 이제 바닥에 온돌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와서 놀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그런 장소가 있고 부엌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주로 나라별로 친구들이 모여서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나눔의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주영준).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 및 서비스의 변화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구체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과 이들의 가족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민 대상 사업을 결혼이주민이나 경제적 취약 가구 등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더 다양한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관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이동 돌봄과 가족역량강화에 대한 사업, 결혼이주민 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가족센터는 경제적 취약성만을 서비스 제공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대상의 범위가 넓고 서비스 제공기간도 길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가족센터의 이용자들은 5년에서 15년 이상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동안 자신의 문제와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였다.

둘째, 사회적 상황과 다문화사회의 이행정도를 고려하여 이주민 및 가족 대상 사업의 초점에 변화를 둘 필요가 있다. A센터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업의 초점은 달랐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한 시점에는 결혼이주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하였으며, 이에 따른 가정의 차별과 폭력의 문제도 많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결혼이주민에 대한 언어와 문화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주민 대상 언어와 문화교육을 통합·조율하여 진행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결혼이주민의 입국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이에 따라 사업의 초점과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민보다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초점 이동이 필요한데, 이는 한국 배우자와 가족을 이루며 살고 주로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결혼이주민과 노동을 하며 홀로 사는 외국

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에 따라 이들의 상황이나 가족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욕구도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주민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초기입국 시 나타나는 언어와 적응 문제보다는 이주 후 10년이 넘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장년 결혼이주민이 겪는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장년기 여성이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와 다르지 않는데, 자녀 양육의 문제나 노후 준비, 배우자의 실직으로 인한 재취업 문제 등이 결혼이주민에게도 직면할 수 있는 문제다. 재취업의 경우, 한국 출신 여성보다 직업 경험이나 가용 자원이 부족한 결혼이주민 경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게 설계하여 이주민이나 선주민 구별 없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족센터는 모든 가족, 모든 연령에 대해 가장 접근성이 좋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앞에서 언급한 이주민 정책의 방향이 보편적으로 전 생애에 걸친 서비스를 지향하되, 서비스를 구성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보편성과 생애주기별 서비스로 범위를 넓혀두면 기관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타 기관과 구별되는 가족센터만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C시와 같이 해외에서 이주한 주민이 많은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 기관 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에 참여한 이주민들은 국내 체류기간이 7년에서 19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사회 안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초기적응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제공이 가족센터의 주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주민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 중심’과 ‘실용성’을 가족센터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관점 중 ‘가족중심실천’과 ‘성과지향실천’

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중심실천(family centered practice)은 가족을 서비스의 중심 단위로 두고 실천하는 것이며, 성과지향실천(outcome oriented practice)은 실천의 결과와 목표 달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실천 방식이다(조소연 외 2015). 이러한 지향은 사회복지실천이 자원을 투입한 결과(output), 즉 실적에만 관심을 두고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한 이용자의 변화를 간과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가족센터에서 이용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많은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해도 그 결과가 취업이라는 성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 가족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여러 가족이 만족스러움을 느꼈더라도, 이후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소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알기 어렵다.

여섯째, 이주민들의 서비스 욕구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족센터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물었을 때,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서 영주권, 국적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의 개설, 그리고 당장 한국에서만 아니라 모국에 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혼이주민은 한국의 변화하는 법률과 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더라도 개별 프로그램이 단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기획되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실천하기 위한 평가는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의 한국사회 체류기간과 가족센터 이용기간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들 간의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한국사회체류기간과 가족센터 이용기간이 거의 일치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오랜기간 한국사회에 체류했으나 실제 가족센터를 이용한 기간은 한국체류기간의 절반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어 학습지원 서비스에 국한하여 가족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이들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탐색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중심 실천은 서비스의 모든 과정에 이용자가 참여하고 결정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지닌 힘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어려움에 대처한 노력에 초점을 둔다(Saleebey 2006). 가족센터는 그동안 이용자의 힘을 믿고 이용자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며 실천해왔다. 척박한 상황의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주민가정이라도 그들의 잠재력과 열정을 믿으며 문제해결을 도왔다. 특히, 문화가 다른 부분을 존중하며, 개인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때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이들이 가족, 가정에 대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람, 희망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정책이 실제 이주민이 살아가는 한국사회에 잘 안착되지 위해서는 가족센터와 같이 이주민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들을 통해 이주민뿐 아니라 한국인의 다문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C시 가족센터의 특정 사례를 기반으로 한 연구이므로, 지역의 독특하고 고유한 맥락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 연구에 참여한 만큼 조사 기관인 A가족센터에 대한 선호와 충성도가 높은 사용자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다문화 정책 및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오히려 가족센터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장에서의 사례를 통한 자료를 수집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교신: 조소연(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smusy@ut.ac.kr)

Correspondence: Soyeun Cho(lecturer, Dep. of Social Welfar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smusy@ut.ac.kr)

2024.05.07 접수, 2024.05.10 심사, 2024.05.23 게재확정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4, 고용허가제고용동향, KOSIS>국내통계>노동>고용허가제고용동향>행정부(시도)/업종별 일반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 <https://kosis.kr/index/index.do>.
- 김영란, 2012,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와 현황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3, 31-67.
- 김종세, 2019,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대상자 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36(2), 71-94.
- 김종세, 202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법학연구*, 21(2), 31-55.
- 김태완·서재권, 2015, 이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결정요인: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1), 173-199.
- 다음백과, 2023, 다문화,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v102ha130a1>.
- 문병기 외, 2018,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 박소정, 2013, 휴먼서비스분야 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교육 실태와 다문화 역량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재복, 2016, 독일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의 사회통합과 수용성, *OUGHTOPIA*, 31(2), 63-94.
- 서미경 외, 2015,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양서원.
- 성미애, 2011,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한.미 비교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63-81.
- 송정아, 20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재주, 2010, 일본, 독일, 호주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다문화정책의 특성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7(3), 5-37.
-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 오경화, 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9), 83-97.
- 이상주·전미숙, 2016, 국가간 다문화정책 비교연구,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6, 209-235.
- 이수자, 2023, 독일 베를린시 Stadtteilmutter (도시지역어머니) 프로그램 연구와 시사점 탐색-이주민 통합의 관점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13(1), 87-106.
- 이은채, 202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주민 삶의 질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법과 사회*, 69, 127-161.
- 조소연 외, 2015, 강점관점 해결중심 실천을 적용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과 슈퍼비전 성

- 과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2012~2015 부산, 경남 지역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2, 31-69.
- 조용환 외, 2022, 질적연구 전통별 접근, 학지사.
- 진미정 외, 2023, 다문화가족의 가족센터 장기이용과정 연구: 다문화 부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8(2), 71-95.
- 최명민 외, 2015,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 통계청, 2023, 2022년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 행정안전부, 2017, 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행정안전부, 2019,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행정안전부, 202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행정안전부, 2023,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Brinkmann, Heinz U. and Martina Sauer, 2016, *Einwanderungs gesellschaft Deutschland: Entwicklung und Stand der Integration*. Wiesbaden: Springer VS.
- Kucheryavaya, E. V. et al., 2020, The multiculturalism policy in Europe. *Online Journal Modelling the New Europe*, 32, 58-71.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 Waldfoegel, J. and C. Lahaie, 2007, The role of preschool and after-school policies in improving the school achievement of children of immigrants. *Immigrant families in contemporary society*, 177-193.
- Wallace, R. et al., 2021, *Multiculturalism Policy Index: Immigrant Minority Policies*. School of Policy Studies, Queen’s University, 1-202.
- Weber, S. et al., 2018, Immigrant students’ educational trajectories: The influence of cultural identity and stereotype threat. *Self and Identity*, 17(2), 211-235.
- Yin, R. K., 2014, *Case study research*.

Multicultural Policies in South Korea : What Changes Are Needed? -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Family Centers in C City

Sun Suk Kim* · So Yeun Cho** · Jae Chan Jin***

Abstract_This study aims to provide concrete evidence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hange in multicultural policies and services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in Korean society. To this end, by interviewing service users and practitioners of A Family Centre, we evaluated the A Family Center's multicultural policies and services and explored their needs. The research participants described their situation before joining the Family Centre, including their confusion, isolation and loneliness, need and thirst for learning, and desire for a happy family. They received services related to information and counselling, education, living support, cultural experiences and leisure activities at the Family Centre, and experienced the outcomes of learning, resting, meeting, gaining confidence, becoming a helper, and creating a happy family through the Family Center. On the other hand, practitioners said that the drivers of this change were listening and explaining, communicating through relationships, focusing on intermediary roles, using users' needs and strengths, and gaining autonomy.

Keywords_Migrants, social integration, multicultural families, family centres

* First auth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Dep. of Social Welfare, Professor, ksunsuk@ut.ac.kr

** Corresponding auth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Dep. of Social Welfare, Lecturer, Smusy@ut.ac.kr

*** Co-Author, Soongsil University, Dep. of Social Welfare, Lecturer, wlswocks@naver.com